연합노보

2012 특보 3.15 목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공병설 · 편집인 정성호.구정모

파업투쟁 선언문

긴 세월이었다.

박정찬 사장 취임 후 3년은 연합뉴스 최악의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에도 차마 끄지 못했던 통신의 불을 우리는 끄려한다.

그 동안 우리는 묵묵히 참아왔다.

국가기간 통신사로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를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했다.

그 동안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차마 담을 수 없는 기사를 한 자 한 자 써내야 했고, 한 없이 무너져내리는 연합의 위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공정보도는 배부른 소리라고, 철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자위하고 그렇게 주문을 걸며 여기까지 왔다.

뉴스와이 출범과 함께 근로조건은 더 없이 열악해졌다.

기자직, 업무직을 가리지 않는 비인간적 압박이 가해졌다.

구성원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은 보도채널 출범에,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박정찬 연임은 우리의 마지막 소박한 기대를 저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선배라 부르지 않겠다.

더 이상 망가져가는 연합뉴스를 지켜만 볼 수 없다.

바른언론 빠른통신은 구호가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마지막 가치고 보루다.

이제 우리는 총파업을 선언한다.

우리의 파업은 누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가장 밑에서부터 타올랐고, 이제 가장 뜨겁게 타오르려 한다.

우리 521명의 조합원 전원은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정찬 사장의 연임을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보도의 기틀을 다시 세울 것이다.

스스로 짖어있던 낡은 관행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연합뉴스로 거듭날 것이다.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우리는 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일터로 당당하게 돌아간다.

다치고 피흘리지도, 울지도 않겠다.

더 이상 우리에겐 뒤도 옆도 없다.

우리는 앞만 보고 나아가 싸워 이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

자, 이젠 떠나야 할 시간!!!

〈총파업 지침1호〉

- 국내외의 모든 조합원은 2012년 3월15일 오전 6시(한국시간 기준)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 파업 기간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며,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을 철저히 따른다.
- 출장자는 전원 회사로 복귀하며, 출장 예정자는 출장을 취소한다.
- 3월15일 오후 2시 본사 앞 한빛광장에서 열리는 파업 출정식에 지역취재본부 조합원을 포함해 국내 조합원은 모두 참여한다.

세계적 특종기자의 편집국 실종사건

2009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기사가 북한부의 단독기사로 타전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기사를 무시했다. 왜? 확인할 수 없었으니까.

북한부는 꾸준히 북한의 후계체제를 다루는 기사를 일관되게 작성해 송고했다. 그리고 결국 정부는 그해 7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의 한복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줬다.

그리고 이 기사를 썼던 북한부의 두 기자는 2010년 관훈언론상과 삼성언론상, 한국신문협회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8년만의 한국기자상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이 기사의 주역인 최선영 기자는 더 이상 편집국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장기간의 휴직과정을 거쳐 현재는 북한DB부로 가 있기 때문이다.

왜 연합뉴스 북한뉴스의 간판격인 최 기자가 편집국을 떠나야 했을까.

최 기자 실종사건은 외부의 압력과 정부에 길들여진 박정찬 체제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압력을 시사하는 발언은 경영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우선 박 사장은 2009년 취임 후 북한부와 회식자리에서 "바깥에서 우리 북한부 기사에 대해 불편해 한다. 너무 앞서 나간다는거다.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2010년 봄 인사에서 사측은 최 기자를 한마디 상의 없이 북한DB부장으로 발령을 냈고 최 기자는 부장직을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부에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완강했고 당시 간부들은 "외부에서 최 기자를 기사작성과정에서 배제해 주길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최 기자 실종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권력 앞에 굴종하는 박정찬 체제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은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더욱이 정보가 부족하고 독점욕을 가진 권력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론이다. 언론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자유로워야 하고 경영진은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러나 박정찬 체제는 외부의 압력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보호해야 하는 기자들에게 떠넘겼다. 기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취재해서 무엇을 쓸 것인지는 스스로 고민케 하고 있는 셈이다.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경영진. 그 집단을 바꿔야 하는 과업이 우리에게 돌아온 셈이다. ■

23년 만의 총파업,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23년 만에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파업에 대한 우리의 단단한 결의는 파업찬반 투표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재적 504명 중 471명이 투표에 참여해 93.45%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투표자의 84.08%가 찬성표를 던졌다. 변화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높았다.

돌이켜보면 지난 2월 말 연가투쟁에서부터 우리는 '기적'을 일궈왔다.

근래 들어 처음 해본 단체행동에 당시 조합원 420명 중 230여명이 참여했다. 150명만 참여해도 성공이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숫자였다.

27, 28, 29일 매서운 늦겨울 날씨에도 뉴스통신진흥회와 본사에서 열렸던 집회에 150여명이 꾸준히 참석해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조합원 총회를 위원장 선거로 대신해온 관행을 감안하면 3월2일 사실상 사상 처음 열린 총회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이어갔다.

어느덧 500명대로 불어난 조합원 중 특파원과 휴가자 31명을 제외한 284명이 모여 격론 끝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후 열흘에 걸친 냉각기에도 투쟁의 지는 식지 않았고,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불공정 보도 특보에 그에 대한 사장의 '오리발 내밀기'식 해명이 투쟁의 열기에 불을 지핀 결과가 됐다.

이제 연합뉴스의 모든 조합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15일 오전 6시(한국시간 기준)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 기간에 조합원은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 출장자는 전원 회사로 복귀하며, 출장 예정자는 출장을 취소한다.

모든 조합원은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투쟁을 수행할 것이다.

15일 오후 2시 본사 앞 한빛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이 열린다. 지역취재본부 조합원을 포함해 국내에 있는 전 조합원이 모여 우리의 투쟁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이번 파업투쟁으로 우리는 얼마 간의 임금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값진 것들을 우리는 쟁취해 낼 것이다.

공정보도, 사내 민주화, 노동여건 개선, 합리적 인사, 통신 콘텐츠 강화...이 모두가 우리가 손에 움켜쥘 것들이다.

연합뉴스 노조여! 단결하라!

동지들이여! 서로 믿고 끝까지 함께 가자! ■

〈총파업 결의문〉(3.2 조합원총회)

우리는 연합뉴스를 망쳐놓은 박정찬 사장의 연임저지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연합뉴스는 박 사장 취임 이후 근로여건 악화, 불공정 보도, 사내 민주주의 퇴보, 인사 전횡 등을 겪어왔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기에 연임저지 투쟁에 나섰다.

박 사장은 연합뉴스 사원을 뉴스Y로 파견하면서 형식적인 전출 동의서를 받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적인 압박이 있었다는 점에 파견자 대다수가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본사 취재기자 수십여 명과 사원들이 뉴스Y로 파견돼 가뜩이나 인력사정이 여의치 못한 연합뉴스의 취재력과 기사 생산능력, 콘텐츠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파견되지 않은 연합뉴스 기자들도 수시로 방송업무에 동원돼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졌고, 전산 분야를 비롯한 업무직 사원들의 업무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또 연합뉴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사안의 보도에서 정권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보도 태도는 언론계와 일반 독자들뿐 아니라 사내에서까지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와 함께 의견 수렴 없는 독선적 경영, 소통 대신 일방적인 지시와 의사결정,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 없는 인사 전횡 등은 대다수 구성원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크게 떨어뜨렸다.

또한 고용 형태와 직군별 차이에 따른 차별적 처우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다.

우리는 연합뉴스를 제대로 된 언론사로 돌려놓기 위해 조합원 총의를 모아 총파업을 결의한다.

2012년 3월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조합원 한마디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 'No pain, No gain'입니다. 지금 회사의 상황이 딱 그러합니다. 고통없이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명분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공정보도라는 대의를 제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파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취재 현장에 있고 싶고 기사도 쓰고 싶습니다. 하지만 통신기자로서 짓눌린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진정 회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후배들을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곳까지 몰고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사는 직시해야할 것입니다.

원칙과 대의를 지키기 위해 사심없이 떨치고 일어선 후배들의 눈망울을 선배들은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연합은 하나입니다.

권혁창 기획취재팀TV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린 나선다. 승리에 그날까지 ♬' 〈파업가〉가 흘러나왔다. 소속이 적힌 붉은색 조끼를 나눠 입은 노동자들이 연신 팔둑질을 해댔다. 굳게 쥔 채 하늘로 뻗은 한 노동자의 주먹에는 굳은살이 엉겨붙어 있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처음 간 파업 집회. 약자인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짐을 싸 서울로 왔다. 한 대학가 고시원 골방에서 지냈다. 기자가 되고 싶었고 연합뉴스 기자만 되고 싶었다. 연합뉴스 공채 시험엔 영어 과목이 따로 있었다. 대학 졸업 전 토익 300점 받던 놈이 하루 13시간씩 꼬부랑 글자들이랑 씨름했다. 한 번 떨어지고 두 해째 운 좋게 '됐다'. 그토록 원하던 언론사였다. 내게 연합뉴스는.

언론 노동자가 됐다. 기자 깜냥도 안되는 놈에게 연합뉴스 기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분이 박정찬 사장이었다. 이젠 그 인사권자에 대해 약자인 기자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무너져왔던 공정보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23년 만이라고 했다. 뭉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싸움을 자주 하지 않는 놈이 한번 싸우면 제대로 싸운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다. 10년 전 따라 부르던 〈파업가〉를 다시 듣고 있다.

손현규 인천취재본부

꽃샘추위도 한 풀 꺾이고 이제 바야흐르 꽃피는 봄이 코 앞입니다.

계절에 맞춰 노총각의 마음도 설래입니다.

그러나 노총각이 처한 현실은 아직 봄이 아니네요.

회사가 파업에 돌입해 버렸습니다.

주위에서는 물어봅니다.

니네 회사 만한 회사가 어딧다고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파업이냐.

모르시는 말씀.

제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간 얼마나 속앓이를 했는데요.

회사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경직되어 갑니다.

여기저기서 흉흉한 소문들은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게 만들 지경이었죠.

그 달콤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지 어제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의 책상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네요.

TV일을 하는 어떤 동료의 건강도 걱정되네요.

기사를 읽어보면, 아무리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이 월급쟁이의 비루한 운명이라지만 기자직 사우들도 참 마음고생 많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위사람들은 걱정합니다. 맞아요. 당분간 우리 모두 힘든 싸움을 하겠지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일이겠지요.

어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민 IT운영부